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9, pp. 165-172, 2021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9.165

경찰공무원의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이미학[1], 이혜진[2], 오한나[3*]
[1]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강사, [2]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3]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Police Officers' Oral Health Behaviors

Mi Hak Lee[1], Hye-Jin Lee[2], Han-Na Oh[3*]
[1]Lecture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2]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owon University
[3]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광주지방경찰청 내 경찰공무원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관리행태 및 구강보건교육 요구를 사용하였다. 기술통계, t-test, Anova,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 처리한 결과, 구강 건강관리 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사람과 치과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강보건지식이 높았고($p<0.001$), 원하는 구강보건교육은 전문가가 직접 구두로 설명하는 것과 올바른 칫솔질 방법이었다. 구강보건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여부, 교육수준, 흡연여부, 보조구강위생용품사용과 치과방문경험이었다(설명력 40.5%).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경찰공무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구강보건 사업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관리행태, 구강보건교육 요구, 경찰공무원, 구강건강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identify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police officers' oral health behavior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37 police officers in Gwangju. A tool used general characteristics,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education needs. The analysis was process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the oral health knowledge was high in a person of using oral hygiene products and in a person of experiencing a visit to dental clinic($p<0.001$). The desired the oral health education were a specialist's direct verbal explanation and the correct tooth-brushing method. Also,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smoking status, using oral hygiene products and Dental visit experience were identified to have influence upon a oral health knowledge (explanatory power, 40.5%). H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applied to basic data in case of developing an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and planning a dental health project for enhancing oral health in police officers.

Key Words :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s, Oral health education needs, Police officers, Oral health

*This paper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Corresponding Author : Han Na Oh(ohn326@wu.ac.kr)

Received July 25, 2021
Revised August 3,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1. 서론

구강건강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사회생활과 정신작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치아 및 악안면 구강조직 기관의 상태를 말한다[1]. 구강건강을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치아우식병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교육, 학교구강보건교육, 특수구강보건교육,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영유아 구강보건교육, 성인구강보건교육, 노인구강보건교육으로 나누어 대상자별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 이러한 구강보건교육들은 구강건강관련 지식을 다양하게 전달하고, 구강건강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한다[3]. 특히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은 구강건강의 향상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4].

구강건강은 최근 생활의 기본요소로 인정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외래 다빈도 질병순위에서 전체 질환 중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치아우식증이 4위로 보고되어 상위질환에 속하고 있다[5].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의료보험의 재정적 낭비와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구강과 관련된 예방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17～'21)의 목표를 국민의 구강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 완화, 예방서비스 이용율 제고로 방향을 정하고, 4대 전략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질환 관리 강화 및 국민 구강건강인식 제고, 접근성 향상,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를 세부 목표로 구성하였다[6]. 따라서 국가적인 지원과 국민의 관심 속에 지역사회의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개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이 필요하다[7]. 이렇게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예방치과진료 급여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구강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8].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은 교대근무가 많은 특수한 직종 중의 하나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경찰업무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과도한 근무시간,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인한 정신적, 환경적, 신체적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과 직무의 위험성이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편이며, 경찰공무원들의 건강유지에 큰 위협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9]. 이러한 이유로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제때 치과에 방문하지 못하여 구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많고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질병 발생과 조기 사망률이 다른 직종 근로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10].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찰직원의 구강건강에 대한 연구[11]에서는 경찰의 우식유병률은 78%로, 경찰의 특성상 구강 관리보다는 오래 걸리는 작업환경을 우선시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하였고, 경찰의 구강 내 상태 및 치료요구에 관한 연구[12]에서는 대부분의 경찰이 신속한 치과치료 및 스켈링이 필요한 치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았으며,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하지만 구강건강관리행태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대상자의 근무환경이 달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경찰공무원의 대한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구강건강지식 및 구강보건교육 요구를 확인하고 구강건강지식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향후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강보건 사업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교육 요구도에 대해 살펴보고,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보건지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광주광역시 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중 2016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지방경찰청 내 직장교육에 참석한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의 표집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는 경

우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를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일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18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237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Ji의 선행연구[13]와 Park의 선행연구[14]의 도구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항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구강보건교육 요구 6문항, 구강건강관리행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문항은 치아우식증 9문항, 치주질환 5문항, 예방진료 6문항, 기타질환 5문항으로 총 25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름에 대한 응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지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787이었다.

2.4 분석방법

SPSS version 21.0 (SPSS Inc., Chicago, IL, USA)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교육 요구를 기술통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t-test와 ANOVA, 사후분석은 Dunc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강보건지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많았고, 연령은 30~39세가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이상이 많았다. 직급은 순경, 경위이상, 경장, 경사 순이었으며, 흡연여부는 비 흡연자가 많았고, 음주 여부는 가끔 마신다가 가장 많았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7)

Variables		N(%)
Gender	Male	120(50.6)
	Female	117(49.4)
Age(yrs)	20-29	64(27.0)
	30-39	78(32.9)
	40-49	71(30.0)
	50≤	24(10.1)
Marital status	Single	11146.8)
	Married	126(53.2)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ion	46(19.4)
	College	31(13.1)
	University≤	160(67.5)
Job grade	Policeman	64(27.5)
	Senior policeman	57(27.0)
	Assistant inspector	40(16.9)
	Inspector≤	76(32.1)
Smoking status	Present-smoker	48(20.3)
	Non-smoker	189(79.7)
Drinking status	Often	35(14.8)
	Sometimes	115(48.5)
	Rarely	60(25.3)
	Never	27(11.4)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구강보건지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령에서는 40-49세가 가장 높았고(p=.018),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자가 높았으며(p=.001), 교육수준은 대졸이상(p=.000), 음주 여부는 절대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3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하루 칫솔질 빈도가 3회인 사람(p=.014),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구강보건지식이 높았고(p=.000), 치과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강보건지식이 높았으며(p=.000),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4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요구도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요구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은 16.5%가 '관심이 있다'고 하였으며, 54.9%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Table 2.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7)**

Variables	Classification	N	Oral health knowledge	
			MD±SD	t / F (p-value)
Gender	Male	120	15.52±3.69	-0.582
	Female	117	15.79±3.67	(.561)
Age(yrs)	20-29	64	14.95±3.51[a]	3.432
	30-39	78	15.52±4.16[a]	(.018)*
	40-49	71	16.73±3.19[ab]	
	50≤	24	14.75±3.12[b]	
Marital status	Single	111	14.79±3.84	-3.464
	Married	126	16.41±3.36	(.001)**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ion	46	13.20±3.67[a]	15.015
	College	31	16.11±3.32[b]	(.000)***
	University≤	160	16.94±3.96[b]	
Job grade	Policeman	64	15.23±3.67	1.820
	Senior policeman	57	15.05±4.17	(.144)
	Assistant inspector	40	15.80±3.34	
	Inspector≤	76	16.38±3.39	
Smoking status	Present-smoker	48	13.48±2.80	-5.632
	Non-smoker	189	16.20±3.67	(.000)***
Drinking status	Often	35	14.40±3.89[a]	5.302
	Sometimes	115	15.70±3.72[a]	(.001)**
	Rarely	60	15.26±3.15[a]	
	Never	27	17.92±3.43[b]	

*p < 0.05, **p < 0.01, ***p < 0.001

Table 3. Oral health knowledge according to oral health behavior **(N=237)**

Variables	Classification	N	Oral health knowledge	
			MD±SD	t / F (p-value)
Tooth brushing frequency	≤ 1	9	12.33±3.04	3.607
	2	55	15.25±3.64	(.014)*
	3	140	16.11±3.76	
	4 ≤	33	15.61±2.38	
Tooth brushing education	Yes	122	15.89±3.59	0.998
	No	115	15.41±3.76	(.319)
Using oral hygiene products	Yes	134	16.71±3.67	5.324
	No	103	14.28±3.22	(.000)***
Scailing experience	Yes	217	15.76±3.72	1.643
	No	19	14.32±2.94	(.102)
Dental visit experience	Yes	201	16.49±3.12	9.393
	No	36	11.25±2.88	(.000)***

*p < 0.05, ***p < 0.001

구강보건교육 시행 시 참석여부는 77.2%가 '참석하겠다' 라고 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6.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치아우식과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가 66.7%,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가 22.8% 순이였고, 원하는 구강보건교육 형태는 '직접 구두로 설명'이 44.7%로 가장 높았으며, 원하는 구강보건교육 내용으로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이 48.9%, '구강질환예방' 이 26.6%,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13.5%,, '영양 및 금연 교육상담' 5.9%, '세치제 선택법' 5.1% 순이었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oral health education (N=237)

Variables	Classification	N(%)
Interest in oral health education	Interested	39(16.5)
	Usually	130(54.9)
	Not interested	68(28.7)
Participate in oral health education	participated	183(77.2)
	Not participated	54(22.8)
Necessity of oral health education	Necessary	157(66.2)
	Not necessary	45(19.0)
	Not necessary at all	35(14.8)
Necessity reason of oral health education	To maintain healthy appearance	22(9.3)
	To learn the proper way of brushing	54(22.8)
	To prevent cavity and oral disease	158(66.7)
	other	3(1.39)
Prefered form of oral health education	Visual materials(video, computer program)	100(42.2)
	Print materials(books, chart)	30(12.7)
	Verbal(one on one verbal instructions)	106(44.7)
	other	1(10.4)
Oral care you want to be educated about	How to brush properly	116(48.9)
	How to use oral health products	32(13.5)
	How to choose a tooth paste	12(5.1)
	Learn about nutrition or tobacco cessation	14(5.9)
	Oral disease prevention	63(26.6)

Table 5.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oral health knowledge

Variables		Model1			Model2		
		β	t	p	β	t	p
General characteristics	Marital status	1.341	3.104	.002	0.699	3.949	.000
	Educational level	1.213	4.535	.000	1.449	2.977	.003
	Smoking status	2.383	4.442	.000	1.553	3.335	.001
Oral health behavior	Using oral hygiene products				1.516	4.000	.000
	Dental visit experience				4.236	7.935	.000
Constant		6.349			16.006		
F		17.263			33.150		
Adj.R^2		.171			.405		

3.5 구강보건지식의 영향요인

구강보건지식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들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은 공차한계(tolerance)가 0.891 ~ 1.00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VIF)도 1.000 ~ 1.123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 모형1은 17.1%, 모형2는 40.5%로 설명력이 상승한 결과를 보였고, 2개의 모형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p<.01$). 연구대상자의 특성만을 포함한 모형1에서는 결혼유무(β=1.341), 교육수준(β=1.213), 흡연여부(β=2.383)가 구강보건지식에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17.263이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구강건강관리행태를 포함한 모형2는 결혼유무(β=0.699), 교육수준(β=1.449), 흡연여부(β=1.553),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β=1.516), 치과방문경험(β=.4.236)이 구강보건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33.150이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들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교육 요구도에 대해 살펴보고,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의 연령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4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5]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6]와 일치하였

다.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는 20대가 구강보건지식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20대는 중·고등학교 시절 경험 했던 구강보건교육이 구강보건지식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도 40대 다음으로 20대가 높았다. 40대에 지식이 높은 이유는 연령이 중장년층으로 넘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면서 구강관리를 위한 지식들을 습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은 높을수록 구강보건지식이 높았는데 이는 Nam과 Bae의 선행 연구[18]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였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구강보건지식이 높아 Ji와 Yoon[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결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강보건지식들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급은 경위이상에서 구강보건지식이 높았다.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는 경감 이상에서 구강보건지식이 높았는데, 직급에 대한 선행연구 부족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음주 여부에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군에서 구강보건지식이 가장 높았다. 이는 건강을 위해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높은 구강보건지식 역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사람과 치과방문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구강보건지식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기 위해 용품의 명칭이나 용도, 사용법 등을 숙지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높아지고, 또 치과방문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과 방문 시 구강보건교육이나 진료과정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에게 듣게 됨으로 인해 구강보건지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공무원의 구강보건교육 요구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구강보건교육에 대해 관심은 보통이다(54.9.%)가 많았고, 관심이 있는 사람(16.5%)은 적었지만,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66.2%)이나 참여도(77.2%)에 대한 부분은 높았다. 이는 구강보건교육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참여하지는 않아도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참석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상자의 높은 호응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Cho[20]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재학 시 학교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구강보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경찰공무원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서는 직장 내 교육에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직장 내 프로그램으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들이 시행된다면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교육방면으로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어 교육 분야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공무원이 생각하는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치아우식과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교정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1]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 이유는 치과치료의 대부분은 양대 구강병에서 확장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성인이라면 그만큼 유병율이 높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교육에 관심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선호하는 구강보건교육의 형태는 전문가 직접 교육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비디오 및 영상물을 이용한 교육을 선호하였다. 선행연구인 Kim과 Lee의 연구[21]에서도 전문가 직접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한 Ji와 Yoon의 연구[19]에서는 비디오 및 영상물을 이용한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근무 환경 탓에 치과를 직접방문하기가 어려우므로 비디오 및 영상물을 이용하는 교육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보통은 직접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데 이는 전문가가 직접 대면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잘 모르는 부분을 바로 확인받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하는 구강보건교육 내용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으로 나타나 치과 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구강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은 개인 또는 대중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반드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며,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구강보건실습 시간 등을 통해 올바른 칫솔질 법을 대상자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공무원의 구강보건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여부, 교육수준, 흡연여부, 치과방문경험과 보조구강위생용품사용이 영향을 미쳤고, 40.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치과방문경험과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이 구강보건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토대로 구강보건교육 시 올바른 보조구강위생용품사용 교육과 더불어 아프지 않아도 구강건강유지를 위해 예방 차원에서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현재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되는 직장교육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직무 전문화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인문소양관련 교육으로 인문학 교육, 고객만족 서비스교육, 인권교육, 건강관련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건강관련교육이 교육과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강건강과 관련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칫솔질 교육을 비롯하여 양대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직장교육의 일부로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교육이 행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의 대상자를 광주지역 일부 경찰공무원을 대상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경찰공무원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교육요구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비교 분석을 하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 더 많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구강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D. Y. Kim, S. J. Moon & D. K. Kim. (2006).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to the water fluoridation at fluoridated area and non fluoridated area in Gimha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30(4)*, 387-399.

[2] J. B. Kim et al.. (2020). *Public Health Dentistry 5th.* Seoul : Komoonsa.

[3] M. H. Choi. (2010). A survey research on industrial workers' oral examination status and oral health educational request lev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1),* 185-195.

[4] J. E. Sim, S. H. Kim, I. S. Park, S. H. Choi, S. H. Kim & M. J. Kim. (2004). A study on the cognition for the periodontal disease management on the industrial workers. *Oral Biology Research, 28(3)*, 173-185.

[5]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0).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Disease statistics*. Healthcare Bigdata Hub (Online). https://www.data.go.kr/data/15065488/fileData.do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First oral health program basic pl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line).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9985

[7] S. Y Seo. (2009). T*he effects of periodontal patients` oral health perception and degree of practice of oral health on quality of lif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Kyonggi.

[8] National Health Insurance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9).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National Health Insurance (Online). https://www.nhis.or.kr

[9] S. D. Won. (1997).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of policemen by todai health index.*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0] S. S. Park. (2002). A study on the effect of stress on the turnover of police.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13),* 98-136.

[11] K. N. Abhishek. (2014). Impact of caries prevalence o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police personnel in Virajpet, *South India.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ety of Preventive & Community Dentistry, 4(3)*, 188-192.
DOI : 10.4103/2231-0762.142027

[12] Manish B. (2015). Oral health status and treatment needs of police personnel in mathura city. *Journal of International Oral Health, 7(9)*, 51-53.

[13] J. Y. Ji. (2015). Relationship between health knowledge and needs for oral health education according to oral health-related experience of some maritime police offic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7),* 322-329.
DOI : 10.5392/JKCA.2015.15.07.322

[14] K. O. Park. (2004). *A study on the needs for oral health education of US Force in Korea and Katus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5] Y. M. Jung, Hwang & M. J. Jeon. (2013).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teachers and or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in nursery schools in daegu.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7(2),* 196-204.
DOI : 10.21896/jksmch.2013.17.2.196

[16] J. H. Lee & H. J. Cho. (2018). Influence of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care practice on oral health guidance for preschooler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5),* 845-865.
DOI : 10.22251/jlcci.2018.18.15.845

[17] H. R Park & S. J. Moon. (2013). Connections between the subjective awareness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of certain adults and their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 of oral health.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 300-310.
DOI : 10.5392/JKCA.2013.13.01.300

[18] I. S. Nam & J. Y. Bae. (2017). Subjective awareness of oral health and oral health knowledge in accordance oral healthcare behavior of seniors over 60 in some area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2),* 485-492.
DOI : 10.5392/JKCA.2017.17.12.485

[19] Y. J. Ji & H. S. Yoon. (2015). Relationship between health knowledge and needs for oral health education according to oral health-related experience of some maritime police offic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7), 322*-329.
DOI : 10.5392/JKCA.2015.15.07.322

[20] S. S. Cho. (2000). *Recognition on oral health and its care by workers in enterprising place.*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21] Y. J. Kim & J. H. Lee. (2018). Survey of needs for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in some orthodontic pati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5),* 569-578.
DOI : 10.21742/AJMAHS.2018.05.39

[22] E. J. Park et al. (2014). Cognition and needs on the patients for the activation of oral health education using smart phone applica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Administration, 2(1),* 45-59.

이 미 학(Mi Hak Lee) [정회원]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15년 4월 ~ 현재 : 서울훈치 과 치과위생사
· 2020년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구강보건
· E-Mail : mh-one@hanmail.net

이 혜 진(Hye-Jin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호원 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예방치학
· E-Mail : qorrha12@daum.net

오 한 나(Han-Na Oh) [정회원]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 예방치학
· E-Mail : ohn326@wu.ac.kr